

신임 학부장 인사말



이상승 경제학부장

경제학부 동문, 재학생, 학부모 여러분, 신임 경제학부장 인사드립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하였으나, 아래 설명 드리는 한국 경제혁신센터 건립 관련 현안이 학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데 시간이 걸려,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경제학부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시작하여,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무역학과로 전환한 후, 1995년 경제학부로 통합되어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경제학부 건물은 7동에서 출발하여, 14동을 거친 후, 경제학부로 통합한 1995년경 현재의 16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시절 상과대학 선배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이후에도 경제학부 졸업생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현재 경제학부에는 학부생 약 800명, 대학원생 약 300명에 더해, 약 350명의 복수 전공/부전공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36명의 교수가 세계적 수준의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학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추진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 류근관 당시 학부장의 주도 하에 경제학부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속작업으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오규, 황영기 공동위원장님, 박재운 명예교수님을 포함한 발전위원회와 각계 동문들이 지난 3여 년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혁신센터는 총 150억 원의 예산에 맞춰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축에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센터의 주요 과제는 학문적 수월성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언을 하는 동시에,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축 혁신센터에는 경

제학부의 양적 성장에 따라 16동, 101동, 220동 등 몇 개 건물에 산재해 있는 모든 시설과 인원이 통합 수용되며, 앞으로 약 10년간 추가 성장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원래 혁신센터는 우석경제관 옆 파워플랜트/영선반 부지에 위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청사진이 동문들과 발전위원회에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부가 사회과학대학 내에 속해 있는 현실, 그리고 파워플랜트 지하에 (관악변전소에서 서울대 전체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송전선이 위치하여 해당 부지에 혁신센터를 건립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대 주변 부지를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대 구성원들과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작년 9월 본부에서 혁신센터와 사회대 리모델링, 그리고 사회과학도서관의 개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제학부, 사회대 그리고 본부 기획위원회와 캠퍼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말 동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학부는 혁신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현재의 도서관은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최첨단 전자 도서관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대 전체는 건축한지 25년이 지나 심각해진 16동의 안전 문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총 예산은 약 540억 원이며, 경제학부가 발전위원회와 정부 예산을 통해 확보한 150억 원을, 본부가 사회대 리모델링 및 사회과학도서관 개축을 위해 250억 원을 기여하며, 나머지 140억 원은 향후 사회대가 전 대학차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대 발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 흔쾌히 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성기학 회장님의 100억 원 출연, 그리고 전·현직 교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마련해 주신 발전기금 중 13억 원, 그리고 본부의 13억 원 지원으로 추진된 우석경제관은 작년 가을 완공되었으며, 성 회장님의 추가 기부로 최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을 포함한 내장 공사가 올 상반기에 완료된 후, 올 가을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경제학부 소식지 43호를 학부 사정으로 인하여 20년 8월이 아닌 21년 2월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문 및 학부 구성원께 43호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학부 소식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44호(21년 8월 발행 예정)부터는 이전과 같이 한 학기에 한번 발행됩니다.

우석경제관은 경제학부를 포함한 서울대 학생들의 교육, 나아가 전 세계의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제적 연구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와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와 우석경제관의 추진에는 성기학 회장님을 포함한 기부자분들과 모금을 주도한 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지대하였습니다. 학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탁월한 연구 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 혁신방안의 제시,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들의 양성을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몇 가지 최근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5급 공채 (과거의 행정고시) 시험에서 이우혁 학생이 최연소 합격을, 김성욱 학생은 국제통상 계열 수석 합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진우 교수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을, 이철인 교수는 교육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용용 교수는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황운재 교수는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류근관 교수님은 통계청장으로 취임하여, 우리나

라 통계 수집과 활용의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어나 교수가 경제학부 최초의 정규 여성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경제학부의 여학생 수가 매우 작았으나, 9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소장 여성 경제학자들이 대거 배출되어, 경제학부는 성별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신입 교수들을 임용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부장 이상승 드림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
-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1992)
-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조교수 (1992-1998)
- 서강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1998-2001)
- 서울대학교 부교수, 교수 (2001-현재)

교수 수상 및 동정

이철인 교수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교육부문) 수상



이철인 교수가 2020년 9월 29일에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이철인 교수는 100여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를 매 학기 담당해오고 있으며, 특히 전인교육에 초점을 두어 모든 수강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는 교육 및 진로를 지도해오고 있다. 경제학부 필수 과목인 거시경제이론을 학생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강의하기 위해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철저한 수업 준비, 학생들을 배려하는 강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친절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높으며,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강의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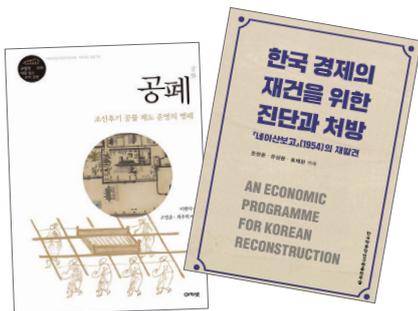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연구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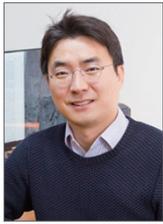
김진우 교수가 2020년 11월 9일에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김진우 교수는 미시 및 이론경제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경매 및 매칭과 같은 완전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에서 자원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학적 모델로 제시하여 세계 최고 경제학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2013년 매경이코노미스트상과 2015년 다산 젊은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이론경제학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Econometric Society의 아시아지역 상임위원회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영준 교수의 집필 도서 2권, 세종도서 선정



조영준 교수가 대표저자로서 집필한 2권의 번역서가 2020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었다(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총류 분야에서 『공폐』(조영준·최주희 역해)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조영준·류상윤·홍제환 역해)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동일 저자의 책 2권이 동시에 선정되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박응용 교수**제9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박응용 교수가 2020년 10월 12일 '제9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박응용 교수가 통화 및 재정정책이 물가·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국내외에서 호평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매년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긴 경제학자 2명을 선정하여 '다산 경제학자상'과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황윤재 교수**석좌교수로 선정**

황윤재 교수가 2020년 9월 1일에 석좌교수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명의 교원을 석좌교수로 선정하였다. 이 제도의 목표는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황윤재 교수는 1991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5년에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황윤재 교수는 계량경제학 전공자로서 이 분야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

박예나 교수**KAEA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박예나 교수가 2021년 1월 4일 '2021 매경-KAEA(한미경제학회) 포럼'에서 '젊은 경제학자(Young economist)상'을 수상하였다.

매일경제와 한미경제학회(KAEA)는 2006년부터 매년 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일군 해외 경제학자에게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여하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다. 박예나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젊은 경제학자상'인 만큼 과거의 성과와 미래의 잠재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승 교수**서울대 경제학부장 겸보**

지난 2년간 경제학부장직을 수행하였던 김대일 교수에 이어, 이상승 교수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경제학부장직을 겸보한다.

이상승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으로 1992년에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과 서강대학교를 거쳐, 2001년에 서울대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론이다.

1998년 제1회 김태성 학술상, 2017년 홍조근정훈장, 2019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최병선 교수**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15년 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최병선 교수가 2020년 8월에 정년퇴임하였다.

최병선 교수는 1983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에는 2005년에 부임하였다. 최병선 교수는 재무경제학 전공자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수학, 수리금융경제학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교수 신규 임용

박예나 교수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박예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이다.

류근관 교수**제18대 통계청장 취임**

류근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5일에 통계청 제18대 청장으로 취임하였다. 류근관 교수는 본교 경제학부를 1983년에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통계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UCLA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및 경제학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학술행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1학기에 개최가 예정되었던 다수의 세미나를 취소하였고 일부 세미나만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4월 21일에 이승덕 교수(성균관대)가 논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을 통해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5월 12일에는 안재빈 교수(서울대)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가 은행의 신용공급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Assessing the Bank Lending Channel of Macroprudential Policy: Evidence from the Loan-to-Deposit Ratio Regulation in Korea"을 발표하였다. 5월 28일에는 나승훈 교수(퍼듀대)가 유위험이자율평가가 위반되는 상황에서의 최적 통화정책을 분석한 논문 "A Robust Monetary Policy under Near-Rational UIP Breakdown"을 발표하였다. 6월 2일에는 엄상민 교수(명지대)가 논문 "Inequality of Fear and Self-Quarantine: Is There a Trade-off between GDP and Public Health?"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효과적 방역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

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 및 추적 대응이 영국의 방식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 및 교수들은 온라인 세미나 형식에 대해 대면 세미나와 달리 개최 공간의 제약이 없고 화면을 통해 발표 자료를 보기 편하지만, 발표자와의 의견 교환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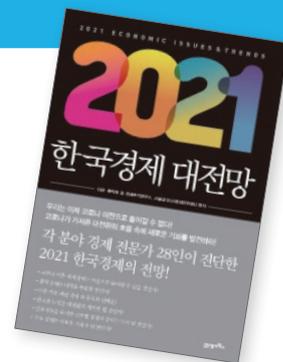


교수신간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지음
21세기 북스(2020년 10월 21일 출간)

2020년 한국경제는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정도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 방역 역량을 유지하며 적절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2021년 한국경제 최대의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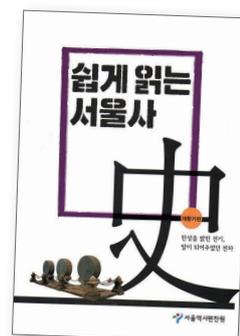
대궐밖의 왕실, 한양의 별궁
김지영, 조영준, 조재모 지음
서울역사박물관(2020년 12월 출간)

이 책은 조선후기 별궁의 유형과 특징을 소개한 책으로, 별궁의 건축 양식, 역할 및 별궁 사람들의 생활사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크게 주목받지 않는 '별궁'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쉽게 읽는 서울史 : 개항기편

조영준 외 19명 지음
서울역사편찬원(2020년 7월 31일 출간)

이 책은 개항기 때 서울의 모습을 주제별로 소개해주는 책이다.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당시 우리의 서울, 나아가 나라를 이야기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조영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책으로, 흥미로운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전할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소개

이 면을 통해 경제학부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서명환 교수

서명환 교수는 최근에 게재한 두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의 증감 패턴을 추정 및 예측하고 여러 예방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량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된 논문 “Estimating a Breakpoint in the Pattern of Spread of COVID-19 in South Korea”에서 감염병 전파 연구에 있어 널리 쓰이는 질병 확산 모형인 SIR(Susceptible-Infected-Removed) 모형에 변환점을 도입하고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자료를 사용해 전염강도 모수의 변환점과 변환점 이전 및 이후의 전염도 값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환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변환점의 존재가 최대 감염자수와 감염자수 변화의 시간경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변환점 이전의 여러 보건정책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술지 Journal of Econometrics에 게재된 논문 “Sparse HP Filter: Finding Kinks in the COVID-19 Contact Rate”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변화로 변환점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모형을 통계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이를 위해 전염강도가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허용한 후, 경향성을 기계학습법으로 정교하게 추정하는 Sparse HP 필터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자료를 예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전파정도의 현재 상태와 변화양태를 정리 요약하기에 유용함을 보였다.



신진욱 (대학원 17학번)

신진욱 박사 과정생은 김성훈 교수(싱가포르 경영대학), 고강혁 교수(고려대)와 함께 서울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집단감염사태(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는지 인구이동 그리고 소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논문 “Economic Impact of Tailored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Evidence from the First Large-Scale Cluster in Seoul”).

(서울생활인구, 신한카드 소비 데이터 활용)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 전후 기간에 대해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반경별 경제적 충격을 확인한 결과 한국 정부가 시행했던 대응 정책 (신속한 역학조사 및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 일시적 건물 폐쇄)들은 해외에서 시행된 대규모 경제봉쇄 정책보다 경제적 충격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로 콜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만 인구이동과 소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해당 충격은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4주 후 집단감염사태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결과는 성공적인 방역사례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역병의 전파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도 타 국가의 방역정책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전파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병 대응전략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정년소회

최병선 교수



‘라떼’ 아닌 ‘러떼’

정년소회(停年所懷)를 써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소회(所懷)를 쓰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소회(素懷), 즉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은 과거를 회상하는 ‘나 때’가 아닌 미래를 꿈꾸는 ‘너 때’를 위한 단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크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큰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 뛰어난 동료교수님들, 유능하고 친절한 교직원들, 그리고 제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관악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내실 있고 윤기 있는 교수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학부를 떠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이 점점 움츠러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그 자체로 빛나야 하는 젊은 시절에 앞으로 살아갈 어려움을 예상해서 미리 달팽이 껍질 안으로 기어들어 가려는 듯한 학생들을 보는 늙은 교수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금은 크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삶의 기본 철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각 개인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경제인 가설’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설은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차갑게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것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경제학의 원래 목적은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과 미국 부(wealth)에서 하위 계층 50%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겨우 1.8%이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왔던 미국은 -0.1%입니다. 더구나 경제위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요? 설사 지속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예를 사용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상위 1%와 하위 5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³⁾ 이 기간 동안 미국 상위 1%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7%에서 20.2%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상승했고 하위 50% 소득은 20.7%에서 13.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열심히 일하고 하위 50%는 ‘노-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 했을까요? 그림 2는 1980년에서 2019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FIRE경제(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economy)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린 것입니다.⁴⁾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에서 1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하락했고, FIRE경제는 15.7%에서 21%로 거의 직선을 그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날로 심해져 가는 경제불평등의 원인이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경제구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FIRE경제 중에서도 불로소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RE, 즉 부동산입니다. 땅은 공급이 제한된 재화이므로 이를 잘못 운용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상징하는 음습한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저출산, 교육불평등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러떼’시대를 살아갈 학생 여러분께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도 ‘라떼’세대를 답습하겠냐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라떼’세대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서 ‘러떼’세대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떼’세대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떼’세대를 위해 ‘라떼’세대가 바뀐다면, ‘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러떼’의 세상은 ‘러떼’세대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러떼’세대 여러분은 독서실 수준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앉아서 단순히 나 하나만의 미래를 위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미래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제불평등과 같은 경제, 사회, 정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살아갈 젊은 이들의 특권이고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1.
미국의 소득비중 (작성자: J.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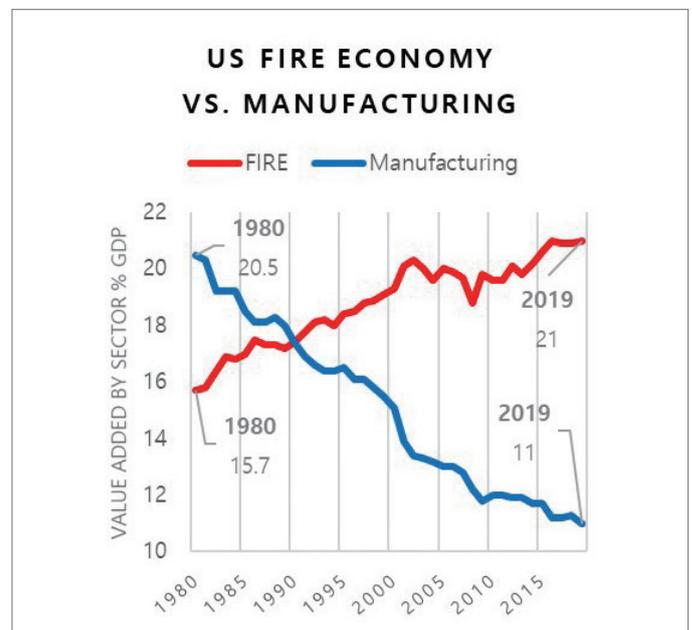


그림 2.
FIRE경제와 제조업 (작성자: J. Kang)

1) 김정욱, 시장과 공감(Sympathy), 대학신문. 2018. 12. 03.
2) Ingraham, C. 'Parasite' paints a nightmarish picture of Korean inequality. The reality in America is even worse. The Washington Post, 2020. 02. 14.

3) 출처: wir2018.wid.world.
4) 출처: www.bea.gov.

박예나 신임교수 인사말



박예나 교수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학사 (2001)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2014)
- 한국은행 조사역 (2005-2007)
- 로체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Rochester) 조교수 (2014-2020)

안녕하세요. 2020년도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한 박예나 교수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6년간 미국 Upstate New York에 위치한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조교수로 일해왔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지난 11년 동안, 미국의 아카데미아(academia)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고마운 배움과 성장의 장이었지만, 동시에 클럽화된 경제학계에서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애증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에 빨리 들어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학계로부터 (적어도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구 활동을 해 나가는 것만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앞에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신 선배 교수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Macro Public Finance라 불리는 거시경제학에 기반한 재정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의 연구분야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의 최적 조세정책, 2.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경제에서의 최적 조세정책, 3. 다양한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의 후생적 함의연구입니다.

한국 경제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적 용어 중에서 정확히 상응하는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최적 조세정책이라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였지만, Optimal tax literature라고 불리는 연구분야는 단순 조세정책만이 아닌 재정정책, 정부 이전정책 및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포괄하는 사실 매우 방대한 연구분야입니다. 정부정책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공통의 정부 목표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 이들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timal tax 연구 분야에서는 조세를 통한 정부재정의 재원 확보, 사전적(ex-ante) 비동질성에 근거한 불평등에 대한 재분배, 그리고 사후적(ex-post) 생산성에 대한 충격과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정부의 중요 목표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세정책 연구 중에서도 정부정책이 불완전한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가질 때,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정부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불완전성을 가지게 되고, 정책과 시장의 상호작용은 시장의 마찰요인(financial friction)에 따라 매커니즘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연구와 제언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시장의 불완전성이 가지는 후생 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또한 저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미국의 탑스쿨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경제학과들이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첫번째 이유는 수준 높은 연구,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적자본들의 집합과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과 같은 연구 중심적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유학을 떠날 시기에 비해서 학부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선배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간 많은 선후배와 친구들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자리를 잡고 서로 좋은 자극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환경 측면에서 서울대 경제학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기고



정종우 (대학원 16학번)

조교 업무를 마무리하며-그 동안 겪어온 변화들

저는 지난 2015년 9월 경제학부 조교로 임용되어 작년 8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조교’라는 명칭은 학부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되지만, 제가 맡은 조교직은 학부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대학 졸업 후 얻은 첫 전일제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조교 생활은 제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학생이자 직원으로서 알게 된 일들과 그동안 겪었던 주요 변화를 짚어보면서 저의 조교 생활을 짧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교직원 사회

학교에는 교수, 학생 사회 못지않게 큰 교직원 사회가 있습니다. 조교가 되고 나서야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한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들의 연구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오랫동안 경제학부에서 근무하신 비학생 조교 선생님들이 학교와의 협상 끝에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수록 학부의 행정 역량은 더욱 발전한다는 점에서 학부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학부에서 겪은 많은 변화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매년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루틴한 업무가 전부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저의 업무는 때때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는 지난 몇 년간 사회 지도층에서 불거진 각종 입시 비리가 주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입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저의 입시 관련 업무에 점차 반영되었습니다. 현재의 입시과정은 제가 임용되었을 때와 비교해 더욱 엄격해졌으며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업무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큰 변화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석박통합과정 중심 대학원 개편이 있습니다. 대학원 모집 정원부터 커리큘럼과 졸업요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번 개편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같이 우수한 박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추진하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여럿 있었지만, 오랜 시간 경제학부 교수님들의 노력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지원 덕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지난 5년 동안 경제학부는 여러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2017년 경제학부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그 결실 중 하나인 우석경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학부가 주관하는 한국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역시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연구와 배움의 터에서, 새로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과 경제학계에 크게 기여할 우수한 학자들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뉴 노멀

2020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할 무렵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16동이 시골벽적했는데, 이제는 학기 중에도 방학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학기의 전체 수업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소위 ‘뉴 노멀’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저출산 등 이미 드러난 현상들마저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학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

지난 5년간 겪었던 변화를 간략히 나열해 보았습니다. 대학원 과정과 학부 일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 힘들 적도 있었으나 주변의 많은 분께서 도와주신 덕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사무실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서는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석박통합과정중심의 대학원을 통해 매해 새로워질 경제학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소개

SNU Economic Review (이리)
 글 : 송인준 (이리 회장, 학부 16학번)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동아리 소개

SNU Economic Review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 동아리이며, 서울대 유일의 경제 매거진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09년 동아리 전신인 경제신문 스터디에서 시작되어 2011년 9월 동아리로 발족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NU Economic Review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경제 지식의 습득, 둘째로는 이론적 지식과 현실 경제와의 연결 및 조화입니다. SNU Economic Review는 경제 시사에 대한 현상적 이해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지식을 매거진 발행을 통해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 소개

SNU Economic Review는 2011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동현 교수님께서 재무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SNU Economic Review를 위해 매거진을 발행할 때마다 서두에 권두언을 게재해주고 있으며, SNU Economic Review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 동아리 활동

*아침 브리핑

정규학기 기간 SNU Economic Review의 회원들은 1주일에 3번씩 아침 8시 반에 모여 경제 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이는 매거진 발행을 위한 준비단계일 뿐 아니라,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회원들은 아침 브리핑을 위해 신문, 주간지 기사, 책, 경제 보고서 등 경제 관련 자료를 구조화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서로에게 설명합니다. 저번 학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브리핑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제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서로의 설명을 통해 매우 다양한 경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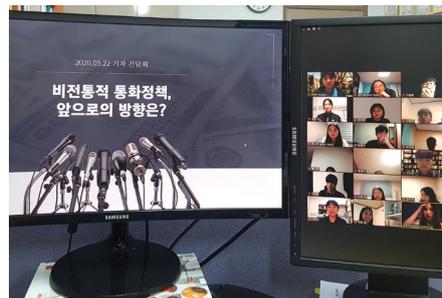
*매거진 발행

SNU Economic Review는 매 계절학기마다 매거진을 집필하고 정규학기 초에 발행 및 배부하여, 서울대 학우들에게 경제 지식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거진 발행을 위하여 방학 내내 회의와 첨삭을 진행합니다. 매거진 작성 시에는 개인당 1기사 원칙하에, 아침브리핑과 정기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2012년 8월 SNU Economic Review 경제 매거진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기준 제16호 발간을 완료했으며 현재 제17호 매거진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매거진은 지도교수님의 권두언, 하나의 큰 주제를 여러 기사를 통해 다루는 '커버스토리'와 '특집', 한 기사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이슈', 그리고 인터뷰로 구성됩니다. 집필 시에는 시의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기사의 주제를 선정하고, 높은 가독성을 목표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

SNU Economic Review는 매 학기 2번의 정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 역시 저번 학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4팀으로 나뉘어 시의성이 높으면서 경제 이론과도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 후, 학습과 자료 조사를 통해 발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그 뒤에 각 팀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우수 팀을 선발하여 회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회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목활동(신입환영 MT, 매거진 MT, 홈커밍데이 + 각종 활동)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SNU Economic Review는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선 신입회원 선발이 완료된 후, 신입환영 MT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거진 발행 전에는 매거진 MT를 통해 매거진 배부 계획 수립과 더불어 활동기수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홈커밍데이를 실시하여 활동기수들과 OB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SNU Economic Review의 인적 네트워크가 활동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작된 11월에는 10km 마라톤에 참여하는 등 기회가 되면 여러 친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모집

SNU Economic Review는 일 년에 2번, 매 정규학기 초에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즐겨 읽고 경제 매거진을 발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 절차는 지원서 접수, 인터뷰, 최종선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규학기 2번, 계절학기 2번 연속 활동 가능한 서울대학교 재학생 혹은 휴학생이라면 학년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SNU Economic Review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snueconomicreview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모집 시기에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는 공지 글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다. 우리 사업단은 2019년 8월 실시된 BK21플러스사업 최종 종합 평가 결과에서 매우우수등급 사업단으로 평가 받은바 있으며, BK21플러스 사업은 2020년 8월 종료되었다.

BK21-Four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계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2020년도 학술활동

BK21사업단은 2020년도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0회
- ▶ BK21/IER Public Seminar 1회
- ▶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2회
- ▶ BK21 H-Trio 세미나 8회
- ▶ BK21 CEBSS 공동 주관 세미나 6회
- ▶ BK21 특별강연 4회
- ▶ BK21 국제학술대회 1회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Seoung Hoon Na (Purdue University)
A Robust Monetary Policy under Near-Rational UIP Breakdown

한희준 (성균관대학교)
Estimation and Inference of Quantile Impulse Response Functions by Local Projections

Joshua Merfeld (KDI)
Smallholders, Market Failure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Evidence from India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Monopsony, Price Squeezing and Inefficiency

Keeyoung Rhee (KDI)
Bailout Stigma

백예인 (Peking University)
Estimation of a Structural Break Point in Linear Regression Models

오준석 (베를린대학교)
Revisiting the New Keynesian Policy Paradoxes under QE

Juan Ortner (Boston University)
Bargaining with Evolving Private Information

Hyunjoo Lee (Ryerson University)
Capital Regulation and Shadow Finance: A Quantitative Analysis

Hongseok Choi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Ambiguous State Dynamics, Learning, and Endogenous Long-Run Risk

BK21/IER Public Lecture Ser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Faculty
The 15th Joint Economics Workshop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BK21 H-Trio 세미나

오창현 (목포대학교)
18~19세기 ‘국가적’ 소유권의 일면과 그 전개: 서울대 규장각 소장 17~20세기 충남 당진 여살(漁箭) 문서 연구

Jinseong Park (Jinan University)
Expenditure Cascades: Evidence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Tax Reforms

Kanghyock Koh (Korea University)
Spending Impact of COVID-19 Stimulus Payments: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Daniel Hamermesh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Adjusting to Loss; Widows' Time, Time Stress and Happiness

Jun Hyung Kim (Jinan University)
Effect of Childhood Peers on Personality Traits

Hee-Seung Yang (Yonsei University)
The Rise of Low-Skill Service Employment: The Role of Dual-Income Households

송경호, 이환웅 (조세연구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Sangyoon Park (University of Hong Kong)
Technology Adoption and Quality Upgrading in Agricultural Supply Chains: A Field Experiment in Vietnam

BK21 CEBSS 공동 주관 세미나

Jean-Robert Tyran (Professor of Finance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Vienna)
Civic Engagement as a Second-Order Public Good

Jeongbi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Time Preferences and Infinitely Repeated Game: Two Experiments

Andreas Blume (University of Arizona)
Mediated Talk: An Experiment

Meng Juanjuan (Peking University)
 What's in a Face? An Experiment on Facial Information and Loan Approval Decision

Masaki Aoyagi (ISER, Osaka University)
 Voluntary Redistribution Mechanism in Asymmetric Coordination Games

Shachar Kariv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ver Since Allais and Ellsberg

BK21 특별강연

박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Who Suffers During Recessions?: Evidence from Korea

신진욱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Limited Attention in Beverage Choice

이동훈 (뉴욕 연방은행 선임경제학자)
 The American Households and the Covid Pandemic

Justin Yifu Lin, Haipeng Xing
 Endogenous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국제학술대회

The 2020 KER International Conference
 BK21 플러스사업단, 한국경제학회, 경제연구소 등 공동주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상 세미나)

학생수상

윤양근 석사(19년 졸업) iHEA Student Paper Prize 수상



윤양근 석사과정 졸업생(2019년 졸업)이 2020년 국제건강경제학협회(International Health Economics Association; iHEA)의 Student Paper Prize(Runners Up Prize)를 수상하였다. 이 상은 대학원 과정 중 작성된 건강경제학 분야의 우수 학위 논문에 수여되며 1999년 처음 제정돼 격년으로 수상자를 배출하다가 2017년부터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iHEA 심사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중 최종 선발 후보 명단을 선정하여 Kenneth J. Arrow Award와 동일한 기준으로 논문들을 평가한다. 2020년에는 전 세계 14개국 34개 논문들이 심사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었다. 윤양근 졸업생의 논문 “Small Scale Rural Water Supply, Typhoid Eradication,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은 수상작들 중 유일하게 석사학위논문이다.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지도한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우수논문상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1960-80년대 농어촌지역 소규모상수도시설 도입이 수인성 전염병 감소에 중요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보건위생 증진효과가 장기적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규모 상수도 시설의 효과만을 입증한데 반하여, 이 연구는 경제적 이유로 상수도시설의 도입이 여의치 않은 농어촌지역 혹은 개발도상국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윤양근 졸업생은 2021년 7월 24-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2021 iHEA Congress의 수상자발표세션(Student Paper Prize Session)에서 위 논문을 발표한다.

경제학부 최민규 학생

2020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 수상



경제학부 최민규(15학번) 학생이 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 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판례평석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청 관세분류평가원이 관세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 현직 세관 공무원 등 74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많은 관련 전문직들이 참가한 공모전임에도 경제학부 최민규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년 1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0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305명, 대학원생 83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10명, 대학원생 25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26명이 향상장학금을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4회 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7명, 석사 22명, 학사 162명(최우등 61명, 우등 65명, 최우수 1명, 총동창회장상 1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74회 전기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2020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20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후기모집에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만을 모집하였고,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20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마르크스경제학’, ‘정치경제학입문’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20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Economics of Catch-up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
박지형	International Trade
조성진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주병기	Advanced Economic Theory
Okui Ryo	Advanced Studies in Econometrics
Oyvind Thomasse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 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20년 3월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2명의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2명의 학생 모두를 2021년 1학기에 파견할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경제학부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정규 과정에 방문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년 2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0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45명 중 427명, 대학원재학생 107명 중 53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서울상대향상장학금(장학생29명)을 포함한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281명, 대학원생 23명이 수혜 받았다.

서울상대향상 장학회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관련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소득분위 0~1)을 위한 장학금으로 27명의 학생이 수혜 받았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저소득 학생들의 생활안정과 학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4회 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8명, 석사 19명, 학사 47명(최우등 14명, 우등 16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74회 후기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2021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21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박통합과정 지원자 45명에 대하여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7명이 합격했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원자 10명 중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서 9명이 합격했다.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2020년도 동계 계절학기가 12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동양경제사’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20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International Trade
주병기	Advanced Economic Theory
Okui Ryo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Okui Ryo	Econometrics
Okui Ryo	Studies in Econometrics Exercises in Economics
Gueron Yves	Microeconomics
Gueron Yves	The Digital Economy

2020년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성적우수자 알림

경제학부는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수업을 진행한 후, 그 해 12월에 기초공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Qualifying Examination)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험은 향후 석박사통합과정 진행 여부를 가르는 시험으로 대학원 학문 기초소양에 중요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올해부터 시험 성적우수자(Distinction)를 별도로 선발하여 1년간 월 130만원의 BK21 장학금을 지급하며, 석박사통합과정 기초공통과목 TA로 임명한다.

<20년 논문제출자격시험 성적우수자>

분야	성적우수자
미시	서재용, 홍진실
거시	공우식, 서재용
경통/계량	공우식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기간 : 2020.1. ~ 2020.12.

1억원 이상

故황재철 장학기금 (상학 59)

5천만원 이상

이경태 (경제 66)

역식(億植) 장학기금 (박승구, 경제 87)

1천만원 이상

신한은행(주) (진옥동 은행장)

이필상 (특임교수)

5백만원 이상

강안호·박수향 (경제 96)

서울상대항상장학회(저소득 학생 지원)

오케이토마토(주) (이영호 대표)

이철인 (경제 85)

1백만원 이상

김태휘 (경제 91)

로츠(주) (황판길 대표)

백상개발(주) (공석돈 대표)

백정기 (경제 71)

성정열 (경제 01)

신상섭 (경제 01)

신영철 (경제 82)

임근형 (공법학과 93)

정운진 (경제 83)

정호성 (국경 89)

홍석철 (경제 92)

1백만원 미만

김주희 (국경 89)

김현호 (국경 89)

박민수 (국경 89)

박상준 (국경 89)

박은경 (국경 89)

서혜숙 (국경 89)

성재호 (국경 89)

안정환

우영진 (국경 89)

윤석환 (국경 89)

윤재호 (국경 89)

이덕희 (국경 89)

이병채 (국경 89)

이철원 (국경 89)

장경수 (국경 89)

장준호 (국경 89)

전성복 (국경 89)

정혁훈 (국경 89)

조성훈 (국경 89)

최인종 (국경 89)

최진웅 (경제 97)

피경원 (국경 89)

한재준 (국경 89)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경제학부와 경제학부 발전 위원회(회장: 권오규 전 부총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27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을 비롯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목표 금액인 400억 원 달성을 위해 2021년에도 모금 활동을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금액은 아래 계획과 같이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 기금, 학생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헌/내/후 모금 사용 계획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285억 원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35억 원
연구 기금	30억 원
학생 지원	30억 원
제휴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경제학부는 가장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것이고,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기부 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www.sn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헌/내/후 기부 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시오.
 - 팩스 발송 : 02-875-8860
 - 사진을 찍어 이메일 발송 : kang97@snu.ac.kr
 - 우편 발송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 02-880-6361 이메일 :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6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연구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경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1,000명 이상의 동문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① 모집인원	40명 내외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② 입학자격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④ 모집시기	[봄학기] 1~2월 [가을학기] 7~8월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 70% 이상
		⑥ 모집안내	전화 : (02)880-5432 팩스 : (02)888-4454 이메일 : asp@snu.ac.kr 홈페이지 : http://ier.snu.ac.kr 주소 :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16동 523호)

*ASP 39기 회원명단

1.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	7. 마호창 신한은행 강원본부 본부장	13. 이영규 현대기아자동차 부사장
2. 권우석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스크본부장	8. 박성수 금융보안원 센터장	14.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3. 김용배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장	9. 박태선 NH농협은행 부행장	15. 정선혜 아트브러쉬 대표
4. 김우석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10. 반기봉 삼성생명 전무	16. 정성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5. 김채윤 KB국민은행 본부장	11. 윤우근 주식회사 엑센트리벤처스 이사회의장	17. 조성민 금융감독원 국장
6.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12. 이상훈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18. 최광진 IBK 기업은행 부장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 gonghj1004@snu.ac.kr 전화 : 02-880-6359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